



3박 4일 교육을 다녀와서

권행영 _ 전북 익산 한마음 목장

생각해 보면 요즈음 같이 어려운 때도 없었다.

노후 대책으로 마련하여 동생에게 맡겼다가 좀 더 나이 들어 하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목장을 아무 준비도 없이 하루 아침에 떠맡아 동물병원일, 집안일, 목장일 세집 살림을 하면서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다.

며칠인데 뭐 조금 더 쓴다고 어떻게 되진 않겠지 하는 생각으로 뒤로 미루었던 라이너 교체시기. 이로 인해 밀려든 유방염.....

길어진 착유시간, 버려지는 우유들, 높아만 가는 체세포, 줄어드는 유대, 때맞춰 들려온 동창생 취업 소식에 나도 잠자는 면허증 깨워 다시 취직이나 해볼까? 나이 먹었다고 취직 안 되면..... 요즈음 대동물 진료하는 수의사가 부족하다던데 애들 아빠 설득해 동물 병원이나 다시 할까? 그럼 목장은 임대를 줄까? 한우로 바꿀까? 이런 저런 생각으로 머리가 아파 올 때 들은 교육 소식. 에라,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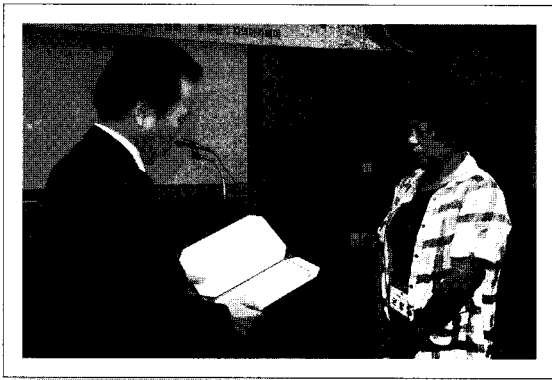
골머리 아픈 것들 애들 아빠에게 다 떠넘기고 나는 온천욕이나 하고 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달려온 수안보..... 웬 걸.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이나 가볍게 하겠지 라는 생각이 무색하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45분 수업에 15분 휴식. 와~ 뻑 세계 잡아 돌리는데 정신이 다 없다.

경영비니 생산비니 대차대조표가 어찌고 차변, 대변이 어찌고 숨이 막히고 머리에 쥐가 날 때쯤이면 어김없이 터지는 웃음소리에 감기던 눈망울이 초롱초롱. 라이너 교체시기에 대해 말씀 하실 때엔 쓰린 가슴 한 번 더 쓸어내리고 언제까지 젖소 머슴으로만 살 거냐며 경영분석 경영관리 잘해 수십 마리 종업원 거느린 사장 한 번 되어 보라는 소리엔 금세 유방염 걸려 미운소가 보고 싶어진다.

뭐 그리 할말이 많은지 쉬는 시간 15분은 짧기만 하고, 그 짧은 시간 위로 스치고 지나가는 여고 시절의 아련한 추억을 이 시간이 아니면 어디서 또 느낄 수 있겠는가?

스타일 검사니, 에너지 측정이니, 손금이니 잔뜩 호기심만 자극해 놓고 가버린 첫째 날에 이어, 웃어 배가 아프고 눈물이 나던 웃음 치료 시간.





그 동안 쌓여온 걱정, 근심 다 떨쳐버릴 만큼 웃다 보니 벌써 3일째란다.

‘봄치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모두 열창 중 인데 내 눈꺼풀은 어찌 이리도 무거운지..... 자꾸만 감기는 눈꺼풀과 싸우며 시간을 보내니 이번에 세무 회계 시간이라한다. 무심코 던져 버린 청첩장, 부고장의 쓰임을 알려 주시는 세무 사님.

밤을 지새워 이야기 하다 보면 어느새 아침 산책시간. 모처럼 착유라는 굴레를 벗고 등산로 따라 걷는 길은 아침 바람의 싱그러움이, 이름모를 들풀의 푸르름이, 풀잎 끝 이슬의 영롱함이 가슴 시리도록 아프다. 오늘이 아니면 언제 다시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을까?

여전히 활력이 넘치는 순옥 언니를 보며, 나약한 몸으로 유가공 해보겠다고 설비 갖춘 명숙씨를 보며, 항상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간직한 재영씨를 보며, 끊임 없이 배우고 또 배워 세상을 넓게 보라는 일윤 언니를 보며, HACCP인증, 체험 목장, 유가공 등을 꿈꾸며 목표를 세워 달려가는 여러 동기생들을 보며 나는 많은 것을 느끼며 기도한다.

그들의 소중한 꿈이, 아름다운 꿈이 영원히 지속되길, 꼭 이루어지길 이 순간에도 기도 한다.

그리고 나의 그렇지 않음에, 나의 무능함에, 나의 안일함에, 나의 나태함에 화가 난다. 아니, 분노가 치솟는다. 숨 한번 크게 쉬고 다짐도 해 본다. 그들의 반에 반이라도 닳아 보자고, 아니 흥내라도 내보자고.

나도 희망을 가져보자고, 인내하자고, 목표를 세워 달려 보자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고.....

3박 4일 동안 열강을 해 주신 강사님, 교육생들의 편안한 교육을 위해 힘든 일 마다 앓고 애써주신 낙농육우협회, 지역 아카데미 관계자 여러분, 먼 길 마다 양으시고 달려오신 협회장님, 위원장님, 이번 교육을 적극 지원해 주신 동진강낙협 조합장님, 그리고 직원들, 마지막으로 수료식 날 꽃다발 한 개로는 부족하다고 애들 아빠에게 연락해 한 아름 가득 안겨준 우리 동진강 식구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교육 후 소감 원고 권유만 없었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을 이 교육, 다시 있다면 언제 어디든 무작정 달려가야지. ☺